

“동물장묘시설? 우리집 앞은 안돼!”

곳곳서 장묘시설 설치 반대...서울엔 한 곳뿐
반려동물 사체 대다수 쓰레기봉투에 버려져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지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동물장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문제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인용한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반려견은 600만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합법적 동물장묘업체는 49곳에 불과하다. 또한 반려동물 사체 발생현황에 대해 양육가구, 반려동물 평균수명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1년에 얼마나 많은 반려견이 사망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

반려견 평균수명을 15년으로 감안하고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추정하면 600만 마리 반려견 중 40만 마리가 사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극히 제한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동물 사체 처리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법, 동물장묘업체에서 정식장제 절차를 밟아 장례를 치르는 법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제는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가 12개 시·도에 단 49곳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서울에는 단 1곳의 동물장묘시설만 있어 서울 거주 반려인들은 동물 사체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 수는 600만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동물장묘업체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정식장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진제공 | 펫뉴스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폐사된 것으로 예상되는 40만 마리의 반려견 중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처리된 비율은 약 8.5%인 3만3998마리에 불과하다”면서 “농식품부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장묘업을 불법적으로 영입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총 30곳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는 6곳이 적발되는 등 불법장묘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가 공식동물장묘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반려동물 사체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동물장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동물장묘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구에서는 지역의 첫 동물화장장 설치를 놓고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주민들의 대결이 치열하다. 대구 서구 상리동에 동물화장장을 설립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지자체가 불허결정을 내리자 ‘건축 불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사업자가 승소했지만 서구청청은 또다시 불허 처분을 내렸고, 사업자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다시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남비(NIMBY) 현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지자체·주민 간의 소통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효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사진제공 | 펫뉴스

반려동물도 코로나 걸릴 수 있다

고양이·양 등 포유동물 코로나바이러스에 취약

반려동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최신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히 포유동물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스페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양이가 코로나19 환자였던 주인으로부터 감염됐다는 연구결과가 지난 9월 21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됐다. 미국 데이비스캘리포니아대(UCD 데이비스) 연구진은 사람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동물 401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고양이와 소·양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중간’, 개·돼지·말 등은 ‘낮음’으로 나타났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진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가 다른 동물의 세포를 어떻게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결과 사람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26종의 동물 중 포유동물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 감염에 취약했다.

UCL 크리스틴 옐고 구조분자생물학 교수 연구팀은 바이러스 단백질과 숙주동물 세포간 결합을 분석 연구했다. 연구 결과 양, 참판지·고릴라·오랑우탄 등 일부 영장류가 사람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했다. 다만 이 동물들에 대한 실제 코로나19 감염 테스트 연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옐고 교수는 “감염 위험이 있는 동물들은 코로나19 발병 위험이 있고, 바이러스 저장소 역할을 해 추후 인간을 재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옐고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조류와 어류, 파충류 대부분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낮지만 포유동물 대다수는 잠재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있었다. 김효승 객원기자

건국대 동물병원-현대차 ‘반려견 헌혈카’ 국제응급수의학회 소개

전국 13개 지역 순회하며 캠페인 벌여
확보된 혈액 건국대 동물병원에 기증

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 현대자동차, 한국헌혈연합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아임 도그너(I'M DOGNOR): 찾아가는 반려견 헌혈카’ 캠페인에 대한 운용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응급수의학회(IVECCS)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건국대 동물병원 응급중환자의학과(최희재 수의사 발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VECCS에 발표를 진행했고, 올해는 ‘반려동물 헌혈카’ 발표로 큰 주목을 받았다. 발표내용에는 ▲헌혈카 제작 과정 ▲캠페인 참여 반려견 선별 과정 ▲헌혈 기부 절차 ▲캠페인 결과 등이 소개됐다. 지원 반려견의 평균 연령은 3.58세 체중은 34kg이었다.

연구진은 헌혈카 캠페인이 헌혈 기부 센터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기부 프로그램



건국대 동물병원과 현대자동차, 한국헌혈연합회가 함께 만든 ‘반려견 헌혈카’가 크게 주목받으며 건국대가 수의분야에서 공익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사진은 ‘아임 도그너(I'M DOGNOR): 찾아가는 반려견 헌혈카’. 사진제공 | 건국대학교

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더 많은 참가자들의

건국대 동물병원은 2019년 10월부터 12월 두 달간 진행된 헌혈카 캠페인에서

헌혈카로 쏠라티를 개조해 만든 헌혈카로 전국 13개 지역을 순회하며 반려견 헌혈 캠페인을 벌였다.

수의사 등 4~6명의 의료진과 수의과 대학생 2명 등 진료진을 지원했다. 헌혈카에는 채혈·분석실과 최신 검사장비가 마련됐으며,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는 반려견은 건강검진을 받고 감사의 표시로 준비된 반려용품을 수령했다. 헌혈 캠페인을 통해 확보된 혈액은 건국대 동물병원 등 일선 동물병원에 기증됐다.

한헌정 교수는 “반려동물 헌혈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도돼 건국대가 수의분야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며 “추후 논문으로도 발표해 캠페인이 학술적으로도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YouTube ‘성경 기부 경제학’ 3번 보면

반려동물 (개, 고양이) 도기본소득 150만원 이상 평생 지급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리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462-671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합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명배 010-829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명숙 010-5118-5263 / 김민성 010-3315-1517 / 송종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추영민 010-4741-7008 ● 초연교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원구 010-8029-0059 / 김용환 010-3742-593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민영희 010-4046-4950 ● 울산 서영원 010-8003-5323 / 최태수 010-4830-1810 ● 창원 이혜미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태익 010-6258-3510 / 오영숙 010-9804-3424 ● 인천 박준표 010-3227-0933 / 주만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보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여천 허한석 010-4707-2659 ● 판문포 010-5177-9479 ● 여주 정관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한만드레아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명대 010-8005-3616 ● 경기 남부 캠프트르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고영철 010-5463-6952 ● 중국 송동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와이 윤이나 010-8763-8742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구세주
□ 21세기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 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결제기부 플랫폼

하이우분투(주)
Hiubntu 1644-6733